



[산업] 현대차 N라인업 확대 아반떼·코나 '한글탈태' 04



Life

[중소] '가구 원탑' 한샘 51년만에 새주인 IMM PE에 매각 L6



서울시,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단 1건... 제도 활성화 나선다

부당한 행정처분 등 감사 청구제도 감사 청구 적어 제도 활용도 낮아 보호 사례 알리는 등 인지도 제고

서울시가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시민 권익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1월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시민들의 온라인 감사 청구가 적어 제도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건수는 총 1건이다. 시민감사 청구는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이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서울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이 행한 사



종로구 창신동 사회주택 관련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관계기관 실시감사 모습. /서울시

무에 대해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상시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감사청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년부터 시민감사를 온라인으로도 청

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5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청구해야 했는데 감사청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시민감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는데도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청구된 시민감사는 연극제 보조금 관련 내용 1건에 그쳤다. 청구인

대표 김모 씨는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임의 해석해 현장에 여러 논란과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조사업 참가단체의 세부 정산내역 제출(이중 정산) ▲연극제 본 행사 종료 후 예산변경 승인 불가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김모 씨는 "문화예술과의 변경된 행정주문은 예술단체의 축제 참가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의 자율성, 작품성, 완성도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서 "문화예술과의 행정이 다시 조려와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50명 이상의 전자서명을 받아야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현재 서명인 수는 22명뿐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민감사 건수는 2019년 8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급감했다. 올해에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온라인 시민감사를 제외하고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전시관리실 재설계와 관련해 1건이 완료됐고 종로구 창신동 사회주택 조성경위 관련 감사 1건이 진행 중이다.

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해당 기간 시는 ▲온라인 전자서명제도 도입 취지와 제도 활용의 효과 ▲기존 시민감사 대비 온라인 전자서명제도의 장점 ▲시민감사를 통한 주요 행정제도 개선 및 시민 권익보호 사례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제도는 지하철 모서리 광고, 서울시 옥외전광판 홍보 문구 표출, 자치구 소식지 게재,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레터 소식지 발송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소상공인 판로개척... 매출 70% 늘어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몰 165억 매출 대형 온라인몰과 전용쇼핑관 운영

#. 한 달 매출이 200만원 남짓이었는데 서울슈퍼유키에 참여한 6~7월 월 매출이 3700만원까지 뛰었어요. 그동안 오프라인 판매를 주로 했었는데 이번 슈퍼유키 참여를 계기로 온라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식품업체 더자연)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5~7월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특별할인전(슈퍼서울유키)과 전용관(썬썬마켓)을 운영한 결과 총 16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



슈퍼서울유키 온라인몰 페이지. /서울시

성장하고 있지만 비대면 판매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대형 온라인몰과 손잡고 전용쇼핑관 운영, 할인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1

일까지 5개 온라인쇼핑몰(롯데온, 지마켓, 옥션, 쿠팡, 티몬)에서 '슈퍼서울유키'를 진행하며 약 4억9000만원의 할인쿠폰을 발행해 총 128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쇼핑몰 업체들에 따르면 슈퍼서울유키 개최로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5개 온라인몰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전용관 '서울썬썬마켓'에서는 지난 5~6월 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썬썬마켓에는 현재 약 2000여종의 소상공인 제품이 입점해 있는데 판매 수수료가 일반 업체보다 낮고 할인쿠폰 발행,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자전거로 영종국제도시 해안도로 달려요"

해안 자전거 전용도로 7.6km 조성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가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사랑받는 '자전거 성지'가 될 전망이다.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영종국제도시 하늘·바다길 조성 1단계 사업' 준공식을 지난 9일 개최했다.

하늘·바다길 1단계 사업은 영종해안 남로 용유역부터 신불IC까지 7.6km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억이 투입됐다. 1단계 구

간이 개통됨에 따라 구읍벤티부터 씨사이드파크, 인천대교 기념관을 거쳐 신불IC까지 기존에 조성된 약 10km의 자전거도로와 연결되어 영종도 남측해안 도로를 시원하게 달릴 수 있게 됐다.

영종·용유를 일주하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중구는 영종북측해안 도로에 2단계 구간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는 이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삼목선착장~운북나들목 구간은 협의를 통해 해안데크를 설치해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김창근 기자 mirex@

전통시장 500개 점포 온라인 진출 돕는다

서울시, 온라인시장 진입 전 과정 지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종합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 다지기부터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

라, 매출을 높이는 판매 비결과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 전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 온라인 판매 과정, 배달상품 관리, 고객 불만 및 품질에 따른 대처 등을 가르치는 강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일회성 단기 교육

이 아니라 약 4개월간 이론, 실습,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역량을 길러주는 게 특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교육, 컨설팅,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쇼핑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 입점 시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과 주문·배송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법도 꼼꼼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15일 (木) 음력: 6월 6일

수도권 날씨 26~3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3/32, 동두천 24/32, 가평 23/32, 파주 24/32, 서울 26/32, 양평 24/31, 인천 25/30, 수원 25/32, 용인 25/32, 평택 24/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캐나다 총리 올림픽 개막식 불참... "무관중 개최 고려" /사진 뉴시스
▲ 日정부, 방역조치 혼선 거듭... "술 파는 식당과 거래 중단" 요청 철회

▲ 美, 델타 확산에 신규확진 2주 새 94% ↑
▲ 폭스바겐,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 50%로 늘린다



▲ 중국 호텔붕괴사고 최종 사망자 17명... 수색 중단 /사진 뉴시스
▲ 탈레반 공격에 아프간 북부 주민 수천명 도주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